

## 김춘추와 자장

Kim Chun-chu and Jajang

---

저자 (Authors)	주보돈 Ju, Bo-don
출처 (Source)	<a href="#">신라문화 49</a> , 2017.2, 1-29(29 pages) <a href="#">THE JOURNAL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SILLA CULTURE 49</a> , 2017.2, 1-29(29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a> The Center of Research for Silla Culture Dongguk Universit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36390">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36390</a>
APA Style	주보돈 (2017). 김춘추와 자장. 신라문화, 49, 1-2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210.178.101.*** 2020/03/17 17:06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김춘추와 자장\*

주 보 돈\*\*

<目 次>

I. 머 리 말	IV. 자장의 9층목탑 건립 추진과 김춘추
II 中古期の 정국과 선덕여왕의 즉위	V. 김춘추의 즉위와 자장의 향방
III. 선덕여왕의 치세와 金春秋·慈藏	VI. 맺 음 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김춘추와 자장의 관계를 다룬 글이다. 흔히 정치적으로는 영원한 동지도 영원한 적도 없다고들 말한다. 이는 정치에는 언제나 이해관계가 깊숙이 작동한다는 의미에서 일 터이다. 김춘추와 자장의 관계를 바로 그러한 입장에서 접근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과 관련한 기록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동지적인 관계였던 듯이 보이면서도 때로는 대립하고 경쟁하는 관계였던 듯이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덕여왕이나 진덕여왕을 지지하고 지원하였다는 점에서는 동지적 입장을 취하였지만 기본적 정치 지향에서는 각기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으므로 마침내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파탄을 맞게 된다고 보았다. 자장이 승려로서 불교를 지배이데올로기로 삼았다면 김춘추는 그와는 다르게 유학을 새로운 정치적 이상으로 삼아 장차 신라사회를 정립해보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자장이 中古期の 舊體制를 그대로 이어가려는 보수적 입장이었다면 김춘추는 新體制를 지향해 새로운 지배질서를 구축하려는 전진적 입장을 취하였다고 진단하였다. 결국 김춘추가 즉위함으로써 두 사람의 관계는 마침내 파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관계였음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영문초록] This paper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Kim Chun-chu and Jajang. It is said that there are no eternal comrades or eternal enemies in politics. This means that only interests are deeply involved in politics at all times. From that perspective, this paper attempted to approach the relationship between Kim Chun-chu and Jajang, because the records related to the two persons suggest that the two seem to have been in a comradely relationship sometimes but in a conflicting and competing relationship other times. For example, they took comradely stances by supporting Queen Sunduck or Queen Jinduck but different stances in basic political orientation. That is the reason wh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finally broke down. Jajang, as a Buddhist monk, made Buddhism a dominant ideology, while Kim Chun-chu had

\* 이 논문은 경북대학교 2013학년도 전임교원 연구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사학과.

the idea of reestablishing a future Silla society by using Confucianism as a new political ideal. In that respect, Jajang seems to have taken a conservative stance to maintain the ancient regime of the middle ancient period, while Kim Chun-chu seems to have taken a progressive stance to establish a new order of domination by pursuing a new regime. This paper intended to prov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finally had to be destroyed by the enthronement of Kim Chun-chu.

[주제어] 김춘추(Kim Chun-chu), 자장(Jajang), 선덕여왕(Queen Sunduck), 진덕여왕(Queen Jinduck), 중고(The middle ancient period), 구체제(The ancient regime), 중대(The middle period), 신체제(A new regime)

## I. 머리말

흔히 말하는 신라 천년의 역사를 큰 시야에서 바라보면 삼국 통일 이전과 이후의 두 시기로 구분이 가능하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中世의 역사서에서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통일신라란 국명을 창안해서 널리 통용시키고 있는<sup>1)</sup> 근·현대 역사학도 마찬가지로의 입장이다. 이는 신라가 삼국을 통합하기 바로 직전의 中古期(514~654)로부터 통일 직후인 中代期(654~780)로의 전환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무게가 실로 작지 않았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중고기, 특히 그 후반은 신라사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고대사에서도 엄청난 시대적인 격동의 기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와 같은 시대적 전환기의 길목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았던 두드러진 인물로서는 일단 金春秋라는 걸출한 영웅을 손꼽는 데에는 이 방면에 대해 약간의 관심이라도 갖고 있는 논자라면 주저하지 않을 터이다. 다만, 김춘추의 역할이나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시기 및 상황에 따라, 혹은 논자에 따라 일정하게 편차를 보여 왔다. 최근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쪽의 평가가 주류를 이루면서 대세를 점해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김춘추를 매개 고리로 삼아 당시의 시대적 추이를 점검해 보려는 경향성이 두드러짐<sup>2)</sup> 그런 실상을 여실히 방증해 주는 사실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로지 김춘추만이 당대를 이끌어간 주인공 역할을 하였을 리는 만무하다. 영원한 동지이자 동업자였다 할 金庾信이 곁에 없었더라면 김춘추의 역량은 제대

1) 윤선태, 「'통일신라'의 발명과 근대역사학의 성립」, 『신라의 발견』, 동국대출판부, 2008.  
2) 朴淳敎, 「金春秋의 執權過程 研究」(경북대박사학위논문), 1999 ; 朴勇國, 「統一戰爭期 新羅 政治勢力의 構成과 變化」(경북대박사학위논문), 2005 ; 金德原, 『新羅中古政治勢力 研究』, 경인문화사, 2007 ; 윤선태, 「김춘추의 집권과 즉위」, 『신라의 삼국통일』(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04), 2016.

로 피어나지 못한 채 일찌감치 묻혀버리고 말았을 터였다. 김춘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김유신도 함께 대상으로 삼아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도<sup>3)</sup>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그들 두 사람과 정치적 입지와 현실적 이해관계를 전혀 달리하는 대척점에 선 인물들도 적지 않았음은 명백히 드러난 현상이다. 현재 기록상의 미비점으로 말미암아 그 전모를 선명하게 파악하기 곤란한 형편이지만 일단 대표적으로는 불교식 이름을 시용한毗曇이란 인물<sup>4)</sup> 손꼽을 수 있다. 비담은 당대 최고위직인 상대등에 있으면서 정치적으로 김춘추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 자신의 즉위를 겨냥해 반란을 도모하였다. 그의 시도는 비록 실패하고 말았지만 김춘추의 위상을 제대로 살피는 데에는 적대적 입장이었던 비담과 같은 인물도 반드시 대상으로 삼아 접근함이 적절한 일이었다.

이상에서 든 인물들은 이미 주요 대상으로 다루어져 그 실상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상태이다. 그렇지만 당시의 정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들만으로 전모를 밝혔다고 판단하기 곤란한 사실이 확인된다. 비록 그들 두 그룹이 두드러진 존재이기는 하였으나 어느 편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은 중도적 입장을 취한 세력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비슷하게 걸어다가 어느 시점에서 방향을 틀어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감으로써 대립각을 세운 경우도 있는 등 매우 복잡다단한 양상이 상정된다. 이와 같은 실상도 어느 정도 함께 밝혀져야만 전환기의 모습이 제대로 드러날 수가 있을 터이다. 그런 인물로서는 승려였던 慈藏<sup>5)</sup> 손꼽을 수가 있다.

자장은 겉으로만 보면 김춘추와 같은 길을 始終 걸어간 동지, 동업자였던 듯이 보이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약간 시각을 돌려서보면 대립·갈등한 존재로도 비쳐지는 유난스런 인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춘추의 진면목이나 정치적 위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데에서는 빠트릴 수 없는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김춘추를 하나의 중심축으로 하면서 자장을 또 다른 축으로 해서 서로 대비시켜 이해해보려는 이유는<sup>6)</sup> 바로 여기에 있다.

3) 朱甫暉, 「金庾信의 政治志向」, 『新羅史學報』11, 2007 ; 「김춘추의 정치지향과 유학」, 『국왕과 의례』(이태진교수정년기념논총), 2008.

4) 朱甫暉, 「毗曇의 亂과 善德王代 政治運營」,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論叢』, 일조각, 1994.

5) 辛鍾遠, 「慈藏과 中古時代 社會의 思想的 課題」, 『新羅初期佛敎史研究』, 민족사, 1992 ; 南東信, 「慈藏의 佛敎思想과 佛敎治國策」, 『한국사연구』76, 1992 ; 金相鉉, 「慈藏의 정치외교적 역할」, 『佛敎文化院』4, 1995(『新羅의 思想과 文化』, 일지사, 1999) ; 李成市, 「新羅僧·慈藏의 政治外交上의 役割」, 『朝鮮文化研究』2, 1999) ; 남무희, 『신라 자장 연구』, 서경문화사, 2012 ; 廉仲燮(姝玄), 「慈藏의 傳記資料 研究」(동국대박사학위논문), 2015. 이들에 서는 대부분 자장의 전기와 관련되는 자료들을 다루고 있다.

6) 필자는 기왕에 김춘추와 비담을 함께 다룬 적이 있지만 당시 자장 쪽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였으므로 한계를 보였다. 여기서는 그 점을 보완해보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 Ⅱ. 中古期の 정국과 선덕여왕의 즉위

신라 천년사를 일별하면 중고기가 각별한 시기임이 단번에 느껴진다. 중고기는 法興王(514~540)의 즉위로부터 시작되고 武烈王(654~661)이 즉위하면서 막을 내린 대충 140년간 썸으로 설정되는 기간이다. 그를 전후 시기의 사정과 대비해서 큰 흐름 속에서 파악하면 일종의 과도기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 정치적으로 볼 때 공동체에 토대한 기존의 部體制的 지배질서가 약화·해체되는 분기점에서 출발하고 국왕을 정점으로 삼은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라는 새로운 지배질서가 자리잡아가기 시작한 시기이기 바로 중고기였다. 말하자면 신라의 지배체제가 크게 바뀌어간 시기였던 셈이다. 이처럼 지배체제의 근간이 크게 변동을 겪으면서 앞으로 새로이 정립해나가야 할 방향을 놓고서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세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 각축하는 양상이 전개되어 갔다. 단순히 최고의 왕족을 비롯한 귀족들 간의 집권을 위한 정치적 다툼을 뛰어넘어 그 志向性을 놓고서도 대립·갈등하고 마찰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삼국이 통일을 겨냥한 치열한 각축전까지 벌인 복잡한 시기였다고 하겠다. 중고기는 말하자면 신라로서는 장차의 命運이 달린 격동의 시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 정치세력들이 어떤 지향성을 가졌던가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어서 이해할 여지를 보인다. 하나는 앞서 부체제 단계의 首長의 성격을 이어받은 데서 출현한 일부 귀족들은 자신들을 중심축으로 해서 정치 운영을 도모해 가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달리 말하면 이들은 국왕만의 獨占의 정치 운영이 아니라 귀족들과 함께 分占·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大等會議나 和白會議와 같은 회의체에 운영의 무게 중심을 두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왕을 정점에 두고 관료적 귀족을 주요 기반으로 삼은 중앙 集權的 지배질서를 구축해 운영을 하려는 입장이었다. 말하자면 장차 신라의 지배체제를 국왕 중심의 집권적 관료체제로 운영하려 하였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전자의 입장을 貴族派 후자의 입장을 王權派라는 용어를 사용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겠다.

물론 당시 정치세력이 모두 꼭 그러한 두 쪽의 입장만으로 확연히 나뉘어졌던 것은 아니었다.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중도적 입장도 적지 않았다. 어쩌면 이들이 다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들도 다시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한층 다양한 입장으로 세분이 가능하다. 다만, 겉으로 상호 대립·대결하는 귀족파와 왕당파의 입장이 두드러졌을 따름이었다. 이들 양자는 당시 중앙집권적 지배질서를 겨냥한 관부와 관직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실제적 운영의 비중을 어느 쪽으로 맞추려는가에 따라 각기 대척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아래에서는 먼저 중고기 정치사의 흐름을 그와 같은 시각에서 잠시 개관해 보고자 한다. 특

7) 朱甫暉, 「三國時代의 貴族과 身分制」, 『韓國社會發展史論』, 일조각, 1992.

히 국왕 중심의 지배질서를 단단하게 다져가는 데에는 왕위 계승의 성공 여하가 언제나 주된 관건으로 작용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아 그 흐름을 대충 짚어보기로 하겠다.

중고기라는 새로운 지배질서를 출범시키고서 그 기틀을 마련한 法興王과 뒤이은 眞興王(540~576)은 관료제를 기반으로 지배체제를 꾸준히 다져나갔다. 당시 본격적으로 추진해 간 영역 확장 정책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림으로써 일단 왕권과의 입장은 점점 유력·우세해져 주류적 흐름을 이루는 듯하였다. 그를 발판으로 해서 국왕 중심의 집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료조직을 정비함으로써 설정한 목적을 착실히 이루어 갔다. 바로 얼마 전 국가 종교로 공인된 불교가 당연하게도 그를 지향해 가는 데에 주요한 지배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국왕의 위상은 일반 귀족과는 전혀 다른 초월자적 지위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신라 불교는 특이하게 北朝 계통의 王即佛 의식은 물론 南朝 및 백제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던 轉輪聖王 의식이 한데 어우러져 작동하고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국왕들은 자신의 위상을 신성한 절대권자, 초월적 권력자로 드높이려는 데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중고기 불교식 王名시대가<sup>9)</sup> 연출되었음은 그런 실상의 일단을 여실히 보여 준다.

그러나 국왕을 정점으로 한 지배체제가 안정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왕위 계승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것이 親父가 아닌 伯父(또는 外祖父)의 뒤를 이어 즉위한 진흥왕대부터 풀어나가야 할 가장 긴요한 과제의 하나였다. 진흥왕은 그를 실제로 추진해 가기 위한 일환으로서 재위 27년(566) 장남인 銅輪을 태자로 삼는 이른바 太子冊封制를<sup>10)</sup> 실시하였다. 기실 신라에서 후계자를 미리 정해두려는 방식인 태자책봉제는 이때 처음 도입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동륜태자가 그로부터 6년째 되던 572년 갑자기 사망함으로써<sup>11)</sup> 애초 품었던 진흥왕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는 이후 중고기 일대를 통해 왕위의 승계에 줄곧 짙은 암운이 드리우는 前兆였다고 할 만하다.

진흥왕이 재위 37년(576)만에 사망하자 둘째 아들인 舍輪(鐵輪)이 그 뒤를 잇게 되었으니 바로 眞智王(576~579)이었다. 진지왕은 재위 4년만인 579년 정치를 어지럽히고 또 개인적으로 荒淫하다는 사실을 빌미로 해서 國人에 의해 폐위당하고 말았다<sup>12)</sup>. 신라 중고 왕조로서는 동륜태자의 중도 사망에 이어서 왕위 계승 원칙을 정립해 가던 도중에 맞게 된 또 다른 파란이었다. 현재 진지왕의 失政으로 지목된 ‘政亂荒淫’의 구체적 실상을 揭示하기는 어렵지만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몇몇 세력, 특히 왕권파와 귀족파를 중심축으로 한 대결이 극한으로 치달던 국면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은 충분히 짐작 가능한 일이다. 진지왕이 國人에 의해 폐위되기에 이른 것은 줄곧 강화된 왕권을 견제하려는 일군의 세력이 행

8) 朱甫暎, 위의 논문.

9) 金哲垓, 『新羅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上,下)』 『歷史學報』1:2, 1952 ; 『韓國古代社會研究』, 지식산업사 1975, pp. 147~154.

10) 『三國史記』4 新羅本紀 眞興王 27年條.

11) 동상 眞興王 33年條.

12) 『三國遺事』1 紀異 桃花女鼻荊郎條.

한 반발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귀족파가 만만치 않은 기반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진지왕의 폐위는 결국 국왕권 중심의 지배체제를 지향해간 왕권파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세였을 직한 귀족파가 거꾸로 반격해 일군 성과였다. 이 사건은 일시적이거나 귀족파가 득세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사실이다. 이로써 신라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중고기를 다시 전후하는 두 개의 작은 시기로 나누는 것도 일견 무방하지 않을까 싶다.

진지왕의 뒤를 이어서 동륜의 아들인 白淨, 즉 眞平王(579~632)이 즉위하였으니 중고 후기의 출발이었다. 그런데 진평왕대 및 그 이후의 정국 추이를 진흥왕의 두 아들인 동륜계와 사륜계의 대립·갈등 관계를 기본 축으로 삼아 가름하려는 견해가<sup>13)</sup>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는 구체적 실상에 의거하지 않고 단순히 진지왕이 귀족들에 의해 폐위되고 진평왕으로 왕계가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만을 근거로 해서 이끌어낸 추론일 따름이다. 약간만이라도 이후 일어난 사실을 직접 대상으로 삼는 접근을 하였다면 그것은 근본적 잘못을 안고 있는 인식임은 단번에 드러난다.

진평왕은 자신의 둘째 딸 天明을 삼촌인 진지왕의 아들 龍春(龍樹)에게 출가시켰다. 외형상으로는 상당한 근친혼이었던 셈이다. 만일 당시 두 가계가 분립되어 서로 대립·갈등한 관계였다면 그런 혼인은 결코 성립하기가 어렵다. 622년(진평왕 44) 大宮·梁宮·沙梁宮의 3궁을 합쳐서 왕실 업무를 따로 전담하는 관부인 內省을 설치하면서 그 장관인 私臣의 자리에다 용춘을 보임한 것도 마찬가지로의 일이었다. 진평왕 이후의 정치적 흐름을 동륜계와 사륜계로 나누어서 접근한다면 순조로운 설명이 매우 힘들어지는 사례이다. 것처럼 중고기 후반기 진지왕의 폐위를 동륜계와 사륜계의 대결이 아니라 다른 입장에서 접근해야 마땅함은 확실시된다. 그렇다면 이후의 전개 양상도 당연히 그런 입장에서 벗어나 달리 해명함이 적절하겠다.

진지왕의 失政 문제를 놓고 벌어진 귀족파와 왕권파 간의 첫 다툼은 일단 전자의 승리로 돌아갔다. 귀족들에 의한 진지왕의 폐위는 마치 앞으로도 여차하면 왕위 계승에서 여러모로 돌발 사태가 발발할 여지가 있음을 암시해 주는 사건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진평왕이 제위 기간 내내 정당한 後嗣를 얻지 못함으로써 문제의 씨앗들은 점점 깊이 뿌려지고 있었다. 진평왕은 자신 중심 왕족 혈통의 뿌리가 석가모니 가계에 있다는 이른바 神聖家族 의식을 앞세워 오매불망 남아를 얻고자 기원하고 노력하였지만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갔다. 결국 재위 54년이란 장기간 동안 딸만을 셋 얻고서 끝내었다. 진평왕도 후계 구도를 마련하는 데에 적지 않게 힘을 기울였으나 결국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됨으로써 장차 차기의 왕위 승계가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다. 진평왕 사후 전통적 진골귀족

13) 申滢植, 「武烈王系の 성립과 활동」 『韓國史論叢』2, 1977(『韓國古代史의 新研究』, 일조각, 1984); 金德原, 「신라 中古期 舍輪系の 政治活動」 『白山學報』52, 1999(『新羅中古政治史研究』, 경인문화사, 2007) 참조.

가운데 누구라도 일정한 자격 요건이나 실력만 갖춘다면 차기를 노릴 수 있는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어 가던 참이었다. 아직 세력의 우열관계가 확연히 겉으로 드러나지를 않은 마당 이어서 일단 물 아래에서만 각기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가던 중이었다.

진평왕이 장기간의 집권을 통해 새로운 관부와 관직을 여럿 설치하고 이를 발판으로 관료조직 체계를 꾸준히 강화해 나감으로써<sup>14)</sup> 중고기의 지배체제는 차츰 안정화되는 길을 걸어갔다. 이는 진지왕의 급작스런 폐위로 맞게 된 귀족과의 득세, 즉 왕권과의 수세 상황을 점점 벗어나 국왕권의 기반이 그만큼 강화되어졌음을 의미하는 일이다. 한편 그런 사정에 어울리게 진평왕은 이제 전륜성왕 의식을 훌쩍 뛰어넘어 불교를 매개 고리로 삼은 신성가족 의식을 주창함으로써 전통 귀족이라 할 骨族 집단으로부터 자신 중심의 특정 가계만을 따로 분리해내어 한 단계 격상시켰다. 이른바 聖骨이란 새로운 왕족 개념과 범위를 창안해 내기에 이른 것이다<sup>15)</sup>. 이는 그만큼 왕권 중심의 지배체제가 확고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성골의 출현은 곧 국왕의 위상 자체를 초월자적 지위로 한껏 드높이는 데 기여한 셈이었다. 이로써 국왕을 求心으로 한 왕실의 구체적 범주가 설정되어 중고 왕족은 기존의 일반 골족(진골귀족)과는 뚜렷하게 차별화되어진 것이다. 바로 이 무렵 왕실 사무를 전담한 내성이 따로 설치된 것도 그와 같은 분위기에서 나온 일이었다.

진평왕의 재위 기간이 오십년을 넘기면서 끝끝내 아들을 얻지 못하게 되자 후계자를 선정, 결정해 두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진평왕은 고양된 왕족 의식을 토대로 자신의 직계 尊卑屬만을 성골로 범주화시킴으로써 장차 卑屬 가운데 누군가로 하여금 왕위를 정당하게 승계할 자격을 갖게 하는 길을 텃지만 아들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후계 구도를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그런데 진평왕이 창안한 성골의 혈연적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잡혀진 까닭에 현재 그 속에는 공교롭게도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남성이 아무도 없게 되었다. 정당한 왕위 승계권자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낸 성골 관념은 예기치 않게 이제 거꾸로 승계권자 선정에서 족쇄로 작용한 셈이 되었다. 진평왕으로서는 결국 왕위 승계를 성골로 한정한 명분 때문에 부득이 자신의 딸 가운데 한 사람을 내세울지 어떨지의 결단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을 맞아가고 있었다. 이로써 신라사 초유의 일인 여왕의 탄생 여하는 당면 정치 사회적 최후의 현안 문제로 부각되기에 이른 것이었다.

진평왕은 마침내 자신의 딸을 즉위시키는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기로 작심하였다. 그때에 내건 명분이 바로 '聖骨男盡'이었다. 당시 '성골남진'이 겉으로 표방되었던 것으로 미루어 그 범주 속에 당연히 들어 있었음직한 자신의 아우 伯飯과 國飯 두 갈문왕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진평왕은 이처럼 성골의 남자로서 정당한 후계자가 없었

14) 朱甫暉, 「중앙통치조직」, 『한국사』(삼국의 정치와 사회Ⅲ), 국사편찬위원회, 1977.

15) 李基東, 「신라 奈勿王系の 血緣意識」, 『歷史學報』53-54, 1972(『신라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한국연구원, 1980) ; 文暲鉉, 「新羅 王族의 骨制」, 『大丘사학』11, 1976(『增補 新羅史研究』, 도서출판 춤, 2000)

다는 사실을 명분으로 내세워 첫째 딸 德曼을 즉위시키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자신의 직계 비속을 중심으로 왕위를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가려는 진평왕의 본래 꿈은 바야흐로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아무리 성골이란 명분을 앞세우기는 하여도 여성을 최초로 왕위에 즉위시키는 전례가 없던 일이어서 그리 순탄하지가 않았을 터이므로 이는 사실상 일종의 명운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는 승부수였다.

善德女王(632~647)의 즉위는 어땠든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서 벌어질 당장의 내분을 일정 기간 미루는 효과로서는 충분히 하였다. 그렇지만 신라 정국은 머지않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필시 폭발하기로 예정된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태나 다름없었다. 진평왕이 아직 생존해 있을 때부터 벌써 그를 알리는 조짐이 드러나고 있었다. 진평왕이 사망하기 7개월 앞서는 631년 5월 벌어진 이찬 柒宿과 아찬 石品의 모반사건은<sup>16)</sup> 바로 그 예고편이었다. 이 사건은 사전에 발각됨으로써 일찌감치 무마되기는 하였지만 진평왕 말년 벌어진 일이고, 또 그 자체가 謀叛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평왕이 차기 왕위를 선덕에게 물려주려 기도한 문제와 전혀 무관하지가 않은 일이었다<sup>17)</sup>. 뒷날 진행된 결과로부터 유추하면 당시 최초의 여왕 즉위에 적극 반대하는 귀족파가 내세웠음직한 명분이 '女主不能善理'였던 것 같다<sup>18)</sup>. 그들은 여왕이 정치를 잘 할 수 없으리라 예측된다는 점을 매우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이었다. 이는 신라 최초의 여왕 탄생이 순탄치 않게 전개될 것임을 뜻하는 사실이었다.

이로써 중고기 후기에는 진평왕이 남아를 생산하지 못한 채 사망함으로써 '성골남진론'과 '여주불능선리론'이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구도가 형성된 것이었다. 그것은 성골 출신자가 모두 소진하고 대신 진골 출신의 男王이 출현할 때까지 장기간 내부가 심히 불안정할 것임을 예고해 주는 일이었다. 뒷날 武烈王이 즉위하기에 이르기까지의 신라 정국은 그때 내세워진 두 명분을 주축으로 삼은 두 그룹의 정치 세력이 격렬하게 각축하는 장으로 펼쳐졌다. '성골남진론'이 왕권파로서 여왕의 즉위를 적극 추진하려는 세력이 내세운 것이라면 '여주불능선리론'은 진골 출신의 남성 즉위를 추진하는 귀족파가 내세운 명분이었다. 다만, 그 밑바닥에는 다시 선덕여왕의 즉위 이후 누가 뒤를 잇게 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하게 벌어질 승부가 기다리고 있었다.

16) 『三國史記』3 新羅本紀 眞平王 53年條.

17) 일찍이 그 성격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현재 선덕여왕의 즉위에 대한 반발이었다는 쪽으로 거의 수렴된 상태이다.

18) 朱甫暉, 앞의 논문(1994). '여주불능선리'가 당태종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나 선덕여왕 즉위 문제를 놓고 자국 내에서 반발하는 명분으로서 일찍이 내세워진 것으로 봄이 순조롭다. 그것이 신라의 원병 요청에 대한 조건부를 내세울 때 당태종이 다시금 그를 문제 삼음으로써 재차 환기된 것이었다.

### Ⅲ. 선덕여왕의 치세와 金春秋·慈藏

칠숙과 석품의 모반 사건이 진압된 직후인 632년 선덕여왕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마침내 아버지 진평왕의 뒤를 이어서 즉위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선덕여왕의 즉위로 정치적 양상은 그 이전과 이후가 현격하게 다른 모습을 띠어갔다.

선덕여왕은 즉위하자마자 진평왕 10년(588) 사망한 弩里夫를 대신해 首乙夫가 임명된 이후 무려 40여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補任 기사가 달리 보이지 않던 상대등에 大臣 乙祭를 임명하는<sup>19)</sup>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그것이 선덕여왕의 즉위와 결코 무관하지가 않은 일이었음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상대등이 최고의 직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덕여왕이 칠숙의 모반 사건 이후 다시금 파국 상황을 맞지 않고 즉위하기에 이른 것은 결국 찬반양론으로 나뉜 두 그룹 사이에서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진 결과라<sup>20)</sup> 풀이할 수 있다. 일단 귀족 파들은 선덕여왕이 즉위하도록 許與한 대신 다음에 다가올 기회를 노리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만한 인물을 상대등의 자리에 앉히는 양보를 받아낸 것이었다. 이는 당태종의 등장으로 국제정세 상에서 긴박감이 크게 고조되어가던 분위기로 말미암아 두 세력의 직접 대결로 빚어질 혼란상과 위기를 일단 피해보려는 심산에서 비롯한 절묘한 절충안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왕위 승계 상에서 안고 있던 근본 문제까지 완전히 일소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선덕여왕의 뒤를 이어 누구라도 선뜻 수용할 만한 적절한 후계자가 확정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는 그만큼 중고기 일대를 통하여 왕권파와 귀족파가 서로 대립·갈등하고 나아가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었음을 뜻하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선덕여왕의 재위 기간 내내 걸로서는 거의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역시 물밑에서는 각종의 입장을 달리하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未久에 닥칠 후계자 문제를 놓고 다시 벌어지기로 예정된 상황에 대비한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음이 실상이었다고 짐작된다. 그런 의미에서 선덕여왕의 재위 기간은 마치 살얼음판을 디딘 듯 대단히 불안정한 모습을 띠 수밖에 없었다. 여러모로 입장을 달리하는 정치세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바탕 위에 놓여 있었던 까닭에 선덕여왕은 재위 17년 동안 특정 관부의 신설이나 정비를 비롯한 기존 지배질서에 약간이라도 영향을 미쳐 견제와 균형이 깨어질 만한 어떤 정치적 조치를 실행에 옮기기가 어려웠다. 선덕여왕 재위 기간 내내 그와 관련한 어떤 정치 행위가 보이지 않고 오로지 佛事만 빈번하게 행하였던 사실은<sup>21)</sup> 그런 사정의 일단을 잘 반영해 준다.

사실 여왕의 즉위 문제를 놓고서 '성골남진론'을 표방해 적극 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덕여왕 재위 기간 동안에도 뚜렷하게 왕권파의 입장을 견지한 두드러진 인물로서는 크게 두 그룹을 손꼽을 수 있다. 하나는 김춘추와 김유신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세력이며, 다른 하나

19) 李基白, 『上大等考』 『歷史學報』19, 1962 ; 『신라정치사학회연구』, 1974.

20) 朱甫暉, 앞의 논문(1994).

21) 朱甫暉, 앞의 논문(1994).

는 慈藏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 진골 귀족세력이다<sup>22)</sup>. 이후의 정치 과정을 살펴보면 양자는 때로는 같은 방향을 추구하면서도 특정 부분에서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그 까닭으로 선덕여왕을 지지해서 즉위시키려는 입장에서는 동업자였음이 분명하나 다른 한편 장차 남왕의 즉위와 함께 새로이 정립될 신라의 지배체제와 관련하여서는 서로의 입장이 달라 경쟁자로서 대립·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따라서 양자의 입장 차이가 한층 구체적으로 드러나야만 선덕여왕대는 물론 이후의 전개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비로소 가능해질 듯하다. 아래에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전개해 보기로 하겠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김춘추는 신라의 전통 귀족들에 의해 폐위된 진지왕의 손자로서 초대 내성사신을 역임한 龍春(龍樹)의 아들이다. 용춘은 진평왕의 딸로서 자기에게는 堂姪(從姪)의 관계였던 天明과 근친혼을 하였다. 이처럼 용춘은 성골 신분이었음이 분명한 천명과 혼인하였지만 진평왕이 사망하였을 시점에도 아직 생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골남 진론'이 표방된 점으로 미루어 성골은 아니었음이 확실하다. 그의 아들인 춘추가 진골이었던 데서도 그 점은 뚜렷이 방증된다. 이로 보면 용춘이 성골 신분이 아니게 된 요인으로는 그의 아버지 진지왕이 폐위된 데에서 기인하거나 혹은 그의 母系에서 문제를 안고 있거나 그 어느 쪽 때문이었을 듯하다<sup>23)</sup>. 그의 출생에는 어떤 비밀이 스며들어 있음이 틀림없지만 혹시 진지왕과 桃花女 사이에 탄생한 鼻荊郎이 곧 용춘이라면<sup>24)</sup> 후자 쪽이 적절할 듯하다. 만약 그 어느 것도 아니라면 진평왕이 자신 중심의 직계 尊卑屬이란 극히 좁은 혈연 범위에만 국한해 신성가족인 성골로 내세움으로써 거기에서 배제된 것으로 짐작된다. 그의 신분이 진골로 결말지어진 실제적 요인이야 여하하든 용춘은 진평왕 즉위 이후 전통 귀족들에 의해 폐위된 진지왕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자연히 당시 지배층 사이에서는 비주류에 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흐름이 그대로 이어짐으로써 아들인 김춘추까지 귀족들로부터 극심한 견제를 받아 주류로 진입하기가 역시 힘들었다. 사실 춘추는 그의 어머니가 진평왕의 딸이라는 모계 혈통만으로 따진다면 신성가족에 당연히 포함될 대상이었으나 실제로는 그러지를 못하였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춘추는 신라의 현실적 상황 아래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더라도 배타적 성향의 진골 귀족들과 타협하기 어려운 입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그런 사정으로 말미암아 신라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모순구조나 문제점을 절실하게 체득해가고 있었다.

춘추의 영원한 동지였던 김유신도 신라의 전통적 진골 귀족들로부터 항상 견제, 배척당하는 처지였다는 점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의 입장이었다. 그는 金官國의 마지막 왕으로서 신라에 투항한 仇衡王(仇亥王)의 증손자였다. 그의 할아버지 金武力은 판료로 진출한 뒤 진흥왕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영역 확장 정책에 앞장서서 맹활약을 펼쳤다. 그는 언제나 戰場

22) 자장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앞의 주 5) 참조.

23) 이를 둘러싸고 오래도록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기동의 앞의 책 참조.

24) 박순교, 앞의 논문 ; 金基興, 『桃花女·鼻荊郎 설화의 역사적 진실』 『韓國史論』41:42, 1999.

의 最前線에 배치되어 엄청난 군공을 세웠다. 신라가 竹嶺 방면으로부터 남한강 상류에로 진출하였음을 보여 주는 물증인 550년의 단양신라적성비를 비롯해 진흥왕대에 중앙정부 주관으로 세워진 거의 모든 비문에 그의 이름이 등장함은 그런 실상을 여실히 입증해 주는 일이다. 그렇지만 그의 관등 승진은 세운 軍功에 비해 그리 빠르지 않았던 점<sup>25)</sup>, 그의 아들로서 김유신의 아버지인 舒玄이 진흥왕의 동생인 肅訖宗의 딸 萬明과 혼인하는 과정에서 극렬한 반대로 난관에 봉착하자 과격적 방법을 동원한 점<sup>26)</sup>, 서현의 딸로서 유신의 동생인 文姬와 김춘추의 혼인이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성사된 점<sup>27)</sup> 등 매사가 순조롭지 않게 이루어졌음이 포착된다. 이는 금관국계가 신라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었던가를 여실히 입증해주는 실례들이다. 그들은 비록 진골 신분으로 편입되기는 하였으나 혼인의 대상에서 철저하게 배제당하는 등 신라에서 주류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다. 전통 귀족들로부터 언제나 극심한 견제와 따돌림을 당하는 영원한 아웃사이드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유신도 역시 신라사회가 지닌 문제점과 한계 상황을 절실히 인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처럼 김춘추와 김유신 둘의 집안은 동일하게 주류인 진골 귀족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있었다는 측면에서 同病相憐의 입장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서로 가까이 다가갈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평소 춘추와 유신 두 사람은 가까이 지냈을 뿐만 아니라 유신의 동생 문희와 춘추 사이의 혼인은 그런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결속시켜 주는 기능을 다하였다. 두 사람의 혼인이 이루어진 얼마 뒤 진평왕 51년(629) 신라가 고구려의 娘臂城을 공격하기 위해 출정군을 파견할 때 용춘과 서현이 함께 대장군에 임명되고 유신이 그들의 (부)장군으로서 나아간 사실은<sup>28)</sup> 그런 정황을 잘 반영해 준다.

그런데 동병상련의 입장과 함께 혼인에 의한 결속 관계만으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하게 착종하는 변화무상한 변동기에 그들이 동지적 관계를 끝까지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기란 쉽지 않았을 터이다. 거기에는 그들 두 집안이 한층 더 깊숙하게 의기투합하도록 할 만한 요소가 내재해 있었던 것 같다. 그 점에서 장차 신라사회를 새로운 방향을 이끌어가려는 데에 비슷한 지향성을 공유한 사실이 각별히 주목된다. 그들 두 집안은 신라의 기존 지배질서나 체제로서는 삼국이 치열하게 각축하는 정황 속에서 더 이상 미래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인식하여 갔다. 그럴 때 그들이 대안으로서 주목한 것이 儒學을 지배이데올로기로 삼는 새로운 지배질서였다. 달리 말하면 전통적인 지배체제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불교이데올로기가 지닌 한계와 문제점을 깊숙이 인지하고 그 대안으로서 유학을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로 삼은 지배질서를 수립해가는 길이었다. 그것만이 그들이 처한 한계

25) 561년 세워진 창녕비에 의하면 迺澮이었지만 그로부터 무려 7년이 지난 568년의 황초령비나 마운령비에서도 여전히 迺澮이었던 사실에서 그렇게 유추된다.

26) 『三國史記』41 列傳 金庾信傳.

27) 『三國遺事』1 紀異1 太宗春秋公條.

28) 『三國史記』4 新羅本紀 眞平王 51年條.

상황을 제대로 극복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들은 모두 유학, 그 속의 王道政治를 통해서 신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는 길을 모색해 갔다. 그리하여 기존 불교가 종교적 기능으로서는 여전히 유효하나 지배이데올로기로서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신라 사회에는 유학에 바탕한 근본적 변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동으로 인식하여 갔다. 이는 언제부터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일단 춘추나 유신이 유학식의 이름을 사용한 데서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이다<sup>29)</sup>. 이미 그와 같은 유학식의 이름은 眞興王대에 세워진 몇몇 碑文에서 확인되듯이 바로 직전 무렵부터 짓기 시작해 점점 확산의 일로에 있었다. 561년의 창녕비에 보이는 鳳安智, 福登智, 就舜智나 568년의 황초령, 마운령비에 보이는 爲忠知, 與難과 같은 경우를 사례로서 손꼽을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公'의 인명 語尾를 사용하기도 한 것도<sup>30)</sup> 그 점과 관련하여 참고로 된다. 유학식 이름이란 좁은 물론 뜻(訓)까지도 고려한 作名이었으므로 居柒夫나 異斯夫의 사례처럼 단순히 借借한 신라식 이름과는 전혀 성격을 달리한다. 뜻을 고려한 유학식의 이름 속에는 작명자(혹은 보유자)의 어떤 희구나 염원 사항을 담으려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왕처럼 발음만 동일하다고 아무 글자나 빌어서 사용한 수준이<sup>31)</sup> 아니라 가능하면 음과 함께 雅化스런 뜻을 가진 글자를 쓰려고 하였다.

그런데 진평왕대에는 처음으로 독특한 金后稷과 같은 중국의 역사적 저명 인물의 이름도 나타난다. 이는 후지와 마찬가지로 중국 역사 속의 聖賢이나 영웅 두드러진 인물들의 이름을 빌어다가 그대로 인명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 춘추나 유신도 바로 그런 연장선 상에서 나온 것이었다. 아마도 작명할 때에 어떤 특정 인물의 이름을 선택한 것은 그 대상 속에 담긴 속성까지도 닮도록 희구하였음이 틀림없다. 뒷날 무열왕 김춘추의 묘호인 太宗에 대한 고집을 당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굳이 꺾지 않았던 것도<sup>32)</sup> 그와 마찬가지로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된다. 따라서 춘추와 유신이 유학식의 이름으로서 특히 특정한 유력 인물이나 사안과 연결된 사실은 곧 그들의 유학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성숙한 데서 비로소 가능한 일이었다. 그를 통해서 어떤 이상을 실현해내려는 희구를 갖고 있었던 것이라 풀이하여도 하등 이상스러울 바가 없다. 이는 그들이 집권한 중대에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國學을 설립하였다거나 중국식의 五廟號나 유학식 諡號를 사용하는 등 유학을 지배이데올로기로 삼았던 사정을 고려하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29) 朱甫暉, 앞의 논문(2008)

30) 503년 냉수리비의 心誓公, 524년 봉평비의 牟珍斯利公 등에서 그런 사례를 몇몇 찾을 수 있다.

31) 이를테면 異斯夫는 550년의 단양신라적성비에는 伊史夫智로, 居柒夫는 561년의 창녕비에는 居七夫로 쓰여 있다. 봉평비에서는 드물게 羞와 같은 글자가 이름자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한자의 뜻보다는 발음이 중시되던 시기의 사정을 보여 주는 일련의 사례이다.

32) 『三國史記』8 新羅本紀 神文王 12年條. 그와는 약간 차이가 나지만 太宗 묘호를 문제로 삼는 내용이 『三國遺事』1 紀異 1 太宗春秋公條에도 보인다.

이상과 같은 의미에서 김춘추와 김유신에 대해 유학을 지배이데올로기로 삼으려 한 정치세력으로 분류하여도 크게 어긋나지는 않으리라 여겨진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라 유학이란 이념으로 굳게 맺어진 동지적 관계였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그들을 新興세력으로 규정하고 전통 귀족을 舊세력이라 설정하여 서로 대비시켜 이해하는 견해가<sup>33)</sup> 제기되어 있지만, 이는 실상과는 어긋난 해석이므로 재고되어 마땅하다. 김춘추와 김유신은 어떤 특별한 상황을 계기로 해서 새로이 기반을 갖추고서 갑작스레 등장한 이른바 신흥세력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도 역시 기존의 귀족세력에 속하였으나 오직 추구한 이상과 이념이 기왕과는 크게 달라진 면모를 보였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당시의 지배세력을 新舊로 이분해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이해라고 여겨진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국왕을 구심으로 한 집권적 지배체제의 구축을 지향하였으며 그래서 선덕여왕의 즉위를 적극 지원하는 쪽에 가담한 왕권파였다고 진단할 수가 있다. 다만, 기존의 지배체제를 그대로 이어가려는 입장이 아니라 유학을 새로운 지배 이념으로 삼아 신라사회를 새롭게 재편해 보려는 희구를 지녔던 개혁적 세력이었다고 진단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전통 귀족 세력과는 근본적인 성격에서 차이가 난다고 하겠다.

그런데 김춘추·김유신과 선덕여왕을 지지하는 왕권파로서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으면 서도 나아가야 할 지향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는 의미에서 승려인 자장은 각별히 주목해 볼 대상이다. 자장의 아버지 茂林은 전통적 진골 귀족 출신이었다. 그는 나이가 많아지도록 아들을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千部觀音에게 나아가 자식 얻기를 기원하면서 '만약 아들을 얻게 된다면 불교계에 회사해 주요한 역할(津梁)을 맡도록 하리라'는 언약을 하였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어머니가 별이 떨어져 품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서 임신하게 됨으로써 낳은 아들이 자장이었다. 공교롭게도 자장의 출생일은 석가세존과 같은 날이었다고 한다. 자장의 어릴 때 이름은 善宗이었다. 자장의 출가 이전 이력은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으나 이미 혼인을 경험하였으며, 자식까지도 둔 상태였다<sup>34)</sup>. 출가하게 된 배경의 일단을 알려주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기사가 보여 잠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A)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속세의 시끄러움'을 한층 싫어해 처자식을 버리고 田園을 회사하여 元寧寺로 삼았다(『三國遺事』4 義解 慈藏定律條)

㉡때마침 台輔 자리가 비게 되어 門閥로 의론해 여러 차례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왕이 조칙을 내려 이르기를 '취임하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고 하였다. 자장이 듣고 말하기를 '나는 정녕 하루라도 계를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백년 동안 파계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고집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왕은 출가를 허락하였다(동상)

33) 李晶淑, 「新羅 眞平王代の 政治的 性格」, 『한국사연구』52, 1986 ; 金瑛河, 「新羅 中古期の 政治過程 試論」, 『泰東古典研究』4, 1988 ; 남동신, 앞의 논문.

34) 이상에 대해서는 『三國遺事』4 義解 慈藏定律條에 의거함.

위의 기사 A)㉠에서는 자장이 처자식을 버리고 자신의 田園을 절로 만들었으며 출가하게 된 이유를 '속세의 시끄러움' 때문이라고 명시한 사실이 특히 주목된다. 출가의 일반적 동기는 흔히 속세의 생활에서 부닥치게 된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 때문이었으나 자장은 하필 '시끄러움' 때문이라고 밝힌 사실은<sup>35)</sup>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그 자체는 신라의 당면 정치사회적 사정이 예사롭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기 때문이다. 물론 아버지 무림이 자장을 얻기 위해 기도하면서 천부관음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데서의 명분일지도 모르겠지만 당시의 혼란스런 정황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때의 실상을 염두에 두면 선덕여왕의 즉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 및 즉위 이후에도 근본적 사정이 바뀌지 않아 순탄하지 못한 실정이었음을 뜻하는 일이다. 그런 사정의 일단을 약간 더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위의 기사 ㉡의 내용이다.

자장은 출가하기 직전 台輔의 자리가 비게 되었을 때 문벌에 의거해 후임으로 선정되었으나 그를 완강하게 물리쳤다. 국왕이 여러 차례 불렀지만 끝끝내 거절하였다. 국왕이 만약 태보 자리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목까지 베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나 자장은 계를 지키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강하게 뿌리치고 출가하였다. 국왕도 결국 자장의 고집이 워낙 완고하여 꺾기 어려움을 알고서 마침내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위의 기사에서 자장의 출가 시점이나 이유 및 과정, 국왕의 존재 등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점이 적지 않지만 전반적 사정으로 미루어 선덕여왕의 재위 연간에 벌어진 일로 추정해도 그리 어긋나지는 않을 듯하다. 자장은 무림이 뒤늦게 얻은 아들이었으나 출가 당시에는 이미 결혼한 상태로 딸린 食率이 있었고, 또 앞서 관직까지 역임한 상태였던 것 같다. 그렇지 않다면 그에게 갑작스레 상당한 고위직인 대보 자리가 주어질리 만무한 일이었다. 아마도 출가하기에 앞서도 자신의 전원을 임시적 사찰로 삼고<sup>36)</sup> 평소 在家佛者(居士)로서 깨끗한 생활을 영위하면서 佛戒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 같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자 당면한 정치적 난맥상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고 여겨 출가하기로 결심해 관직에서 물러나려 하였다. 이때 국왕, 즉 선덕여왕은 그의 출가를 만류하기 위해 마침 공석이 된 대보 자리에 앉히려 하였으나 자장이 완강하게 거절하였으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대보의 구체적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문벌로서 결정되는 자리였다고 한 사실로 미루어 상당한 고위직이었음은 틀림없다. 자장의 아버지 무림이 상대등 關川을 비롯한 가장 유력한 가문 출신자로서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6인으로 구성된 소모임(회의체)의 멤버였던 점으로<sup>37)</sup> 미루어 전통 귀족 가운데서도 대단한 유력자였음이 분명하

35) 황룡사찰주본기에는 기와는 다른 기록이 보인다. 이들도 역시 뒷날의 윤색일 수가 있다.

36) 자신의 집을 회사하여 元寧寺로 삼았던 시점은 같은 기사에서 당에 유학하고서 귀국한 뒤라고도 하여 기록상 약간의 착란이 보인다.

37) 『三國遺事』1 紀異 1 眞德王條. 다만, 이 기사는 기년 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 약간의 조율이 필요한 사료이다. 자장의 아버지 무림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한편 廉長의 경우 비담의 난에 가담한 주동자 廉宗과 동일인

다. 어쩌면 무림이 그 무렵 사망한 까닭에 자리가 비게 되자 아들 자장으로 하여금 문벌상 일종의 당연직으로서 승계하도록 결정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門閥當議’라고 한 표현은 어렵פות하게나마 그런 실상의 일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장은 오히려 아버지 무림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시끄러운 속세를 벗어나 출가하기로 결심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것은 여하튼 전반적 사정을 미루어 자장의 집안은 전형적인 왕권파로서 선덕여왕을 지지하였음이 분명하다.

선덕여왕이 말을 듣지 않으면 목까지 베겠다고 위협할 정도로 자장의 출가를 강경하게 반대한 것도 그의 도움이 현실적으로 매우 절실하다고 느낀 데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자장으로서의 계를 굳게 지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출가한 뒤에도 여전히 선덕여왕을 계속 지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받아들여지게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쩌면 이름으로 미루어 불교의 입장에 섰던 毗曇이 뒷날 선덕여왕에 대한 적극적 반대파였음을 고려하면 선덕여왕으로서의 승려로서의 자장이 적극 나서서 지원해주는 편이 자신에게 한층 유리하리라 판단하였던 것 같다. 자장이 뒷날 당에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곧장 선덕여왕에게 나아가 지원 활동을 적극 펼친 것은 그런 사정을 방증해 준다.

이상과 같이 자장도 김춘추·김유신과 마찬가지로 선덕여왕의 편에 선 왕권파였다는 점에서는 정치적 입장을 같이하였다고 여겨진다. 다만, 그가 출가해 승려로서 활동하게 되었으며 뒷날 주로 불교적 입장에서 정립될 만한 治國策을<sup>38)</sup> 적극 제안하려 한 점에서는 김춘추·김유신 일파와는 근본적 입장에서는 차이가 났다. 말하자면 자장은 ‘성골남진론’을 표방한 왕권파로서 선덕여왕을 지지하면서도 신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는 도리어 불교 지배이데올로기를 견지한 전통적 귀족파와 동일하였던 것이다<sup>39)</sup>. 그런 점에서 자장은 김춘추 일파와는 근본적 입장이 달랐다고 하겠다. 자장은 왕권파로서 중고기의 불교를 지배이데올로기로 삼은 지배체제를 그대로 이어나가고자 하였다. 같은 왕권파라도 중고기 신라사회를 바라보는 현실 인식이 크게 차이가 났던 데서 비롯한 것이었다. 김춘추·김유신 일파가 현실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 성향이었다고 한다면 자장은 기존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처럼 김춘추와 자장은 동일한 왕권파로 분류되더라도 신라사회에 대한 현실 인식은 물론 장차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뚜렷이 대비되는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그들은 선덕여왕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데에서는 ‘여주불능선리’를 앞세운 귀족파에 대해 공동 전선을 펼쳤으나 근본적 입장 차이로 말미암아 장차 반대파가 제거된 뒤에도 여전히 갈등 없이 공존하리란 보장은 결코 없었다. 아마도 대립, 마찰이 필시 노골화될 것임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거나 혹은 그와 혈연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38) 남동신, 앞의 논문. 다만 씨는 김춘추 김유신 일파를 反王派로 보았는데 이는 따르기 어렵다.

39) 이런 점에서 필자는 남동신과는 근본적 입장을 달리한다.

#### IV. 자장의 9층목탑 건립 추진과 김춘추

선덕여왕의 즉위 이후에도 여전히 대립각을 세워왔던 여러 정치세력들은 각각 주변 움직임을 두루 살피면서 차기를 노리는 대책을 마련해가고 있었다. 크게는 선덕여왕을 지지하는 왕권파와 반대하는 귀족파의 이분 구도였지만 앞으로 그에 더하여 지배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정치 지향에 따라서도 견해 차이를 보였으므로 좀 더 세분이 가능하다.

귀족파는 기존 지배체제의 지속적인 유지를 기본 입장으로 취하면서도 앞으로 누구를 왕위에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달랐을 터였다. 이미 ‘聖骨男盡된 마당에 진골귀족 가문 출신으로서 大臣級の 현직이라면 누구라도 즉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셈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직책상 현직의 상대등이 가장 유력하기는 하였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각자 자신의 즉위를 주장할 가능성은 충분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당시 상황은 그리 단순하지가 않았으며 합중·연횡하는 등 매우 복잡한 양상 속에서 전개되어 갔다.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견제와 균형 현상이 깨어지는 일대 사건이 벌어졌다. 7세기에 접어들자마자 백두대간을 넘어 신라 영역을 조금씩 잠식해가던 백제가 642년에는 낙동강 이서 지역의 요충지인 大耶城(합천)까지도 장악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다. 이로써 낙동강 유역권의 옛 가야 경역이 모두 백제의 수중에 떨어짐으로써 신라는 오래도록 쌓아왔던 기반의 상당 부분을 하루아침에 잃자 큰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당시 대야성 방면의 방어를 책임진 최고 군사지휘자는 金品釋이었다. 그는 당해 지역 전체를 상실한 일 자체에 대해서도 당연히 일차적 책임을 져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대상을 거의 가리지 않고 각별히 女色을 밝히는 등 매우 부정한 행실은 물론 대야성이 함락되던 최후의 순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항복을 선택하는 등의 低劣한 행태는 더욱 큰 정치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는 당시 圓光의 발의로 신라사회에 널리 퍼져 귀족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당연히 지켜내어 마땅한 기본 덕목으로 자리잡은 世俗五戒를 정면으로 부정해버리는 결코 있을 수 없는 행태였기 때문이다. 비록 김품석이 사망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을 것이 틀림없다. 그는 당시 왕권파의 유력한 실력자로 한창 부상 중이던 바로 김춘추의 사위였다. 이로 말미암아 비난의 화살은 저절로 김춘추에 쏟아짐으로써 그는 갑작스레 커다란 위기 상황에 내몰리었다. 물밑에서 한동안 잠복해온 대립·갈등 구조가 바깥으로 본격 분출되어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을 맞아가고 있었다. 김춘추는 당면의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당과 고구려를 대상으로 한 청병 외교 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그의 동지 김유신도 대응책의 일환으로서 곧바로 전선으로 달려가 백제 대상으로 상실한 영토 회복에 앞장섰다<sup>40)</sup>.

신라의 내분·갈등이 한창 달아오르고 있을 즈음 당으로 유학을 떠났던 자장은 643년에 급거 귀국하였다. 그가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시점에 대해서는 636년 혹은 638년이란 서로

40) 朱甫暉, 『金春秋의 外交活動과 新羅內政』 『韓國學論集』20, 1993.

다른 기록으로 말미암아 견해가<sup>41)</sup> 엇갈려 논란되고 있다. 그것은 여하튼 자장이 귀국하게 된 것은 설정해둔 본래의 목적을 모두 달성하였기 때문인지 어떤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때마침 선덕여왕이 당 태종 앞으로 글을 보내어 귀국시켜주도록 요청한 데에<sup>42)</sup> 따른 것이었다. 어쩌면 선덕여왕이 자장의 귀국을 바란 것은 그의 도움이 절실한 사정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신라는 대내외적으로 긴박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선덕여왕도 자신을 적극 지원해줄 유능한 인재가 당장 필요하던 때였다. 그러자 도움의 일차적 대상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자장이었다. 자장도 백제의 공세로 위기를 맞은 신라가 당에 파견한 講兵使를 통해서 안팎의 사정을 익히 알고 있던 터였다. 그는 이미 당에 체류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덕여왕의 극력 반대를 무릅쓰면서 출가를 고집할 때 했던 어떤 언약을 지킬 시점이 왔다고 여겨 급거 귀국하기에 이른 것 같다.

자장은 귀국하자마자 芬皇寺에 주석하면서 당면의 대내외적 위기 국면 극복을 위해 여러 가지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갔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불교계 내부의 안정과 단합을 도모하는 데에 힘을 크게 기울였던 것 같다. 그 일환으로 궁중에 들어가서는 大乘經典, 황룡사에 사부대중을 불러 모아 『菩薩戒本』을 강론하면서 신지식 전달에 힘썼다. 게다가 불교계를 총괄하는 大國統에 임명된 뒤 즉시 僧職 및 僧官制를 마련하고 규범을 정리하는 등 불교계의 조직화·체계화를 도모하였다<sup>43)</sup>. 이를 계기로 신라에서 불교는 매우 빠른 속도로 널리 확산되어 전국에 걸쳐 佛戒를 받고 불법을 받드는 집이 열 집 가운데 8-9집이나 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불교는 왕경 중심의 귀족사회 뿐만 아니라 지방의 基層 민중사회에 이르기까지도 주류적 신앙으로 자리 잡기에 이른 것이었다. 자장의 발의로 眞身舍利가 안치된 戒壇을 마련한 通度寺가 왕경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지방에 세워진 것은 그와 같은 실상을 잘 방증해 준다. 이로써 신라는 비로소 명실상부한 불교국가로 자리매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라의 내부가 크게 안정되어졌음은 물론이다.

한편 자장이 귀국하자마자 가장 크게 관심을 기울인 대상은 당면한 안팎의 위기 극복의 문제였다. 그를 위해 자장이 제시한 방안은 황룡사에다 9층의 목탑을 건립하는 일이었다. 왜 하필이면 9층 목탑 건립을 건의하였을까 의문이다. 거기에 강한 정치적 목적이 깃들어 있지 않다면 격동의 시기에 너무도 한가로운 조치여서 별로 어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스러운 시기에나 있을 법한 시도였다. 그럼에도 그것이 추진된 데에는 강한 정치성이 깃들어 있었음을 뜻한다.

신라에서 9층탑의 건립은 이미 隋에 유학한 安弘(安舍)에 의해 제의된 적이 있다. 안홍도 역시 귀국하자마자 9층탑을 세우도록 진평왕에게 건의하였지만 실현시키지를 못하였다. 그

41) 앞의 주5) 논문 참조.

42) 『三國遺事』4 義解 慈藏定律條.

43) 李銖勳, 「新羅 僧官制 의 성립과 기능」, 『釜大史學』14, 1990 ; 蔡尙植, 「慈藏의 교단정비와 僧官制」, 『佛敎文化研究』4, 1995.

러다가 이제 자장이 귀국해 분열된 국론을 결집시키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9층 목탑의 건립을 제안한 것이었다. 그것이 하필 황룡사를 대상으로 한 점, 9층이었던 점은 일단 주목의 대상이 된다.

황룡사는 이미 진흥왕대에 왕궁을 건설하려다 대신 불사로 바꾸어 건립한 뒤 당시 추구한 전륜성왕의식을 비롯한 왕즉불의식, 그리고 진평왕대 추진된 신성가족(釋迦族) 의식을 구현하는 구심의 기능을 한 신라의 핵심 사원이었다<sup>44)</sup>. 말하자면 황룡사는 불교 지배이데올로기 구현의 중심이었던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이제는 9층의 목탑을 처음으로 건립하려는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아마도 선덕여왕이 황룡사가 여전히 그런 위상을 유지하게 의도한 데서 말미암은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황룡사에 9층목탑을 건립하려 한 밑바탕에는 이를 계기로 해서 진흥왕이 추구한 것과 비슷한 모습을 재현시켜보려는 목적을 깔고 있지 않았을까 싶다. 굳이 황룡사를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다른 하나는 그 자체가 9층이었다는 사실이다. 황룡사탑을 9층으로 설정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재된 것이겠지만 그 수치는 最高로서 하나의 완성을 뜻한다. 9州가 천하 사방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를 매개한 불국토 구현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듯하다. 그런 배경 아래 뒷날 어느 시점에 9층의 각층에는 신라의 천하에 포섭되어 들어올 9夷, 9韓의 관념을 비정하는 의식이<sup>45)</sup> 나오게 된 것이라 하겠다. 개별 나라의 이름으로 미루어 9夷와 9韓은 당대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어떤 천하, 완성된 천하를 가리키며 그것이 곧 안정을 회구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다. 그럼으로써 뒷날 몽골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한 회구에서 大藏經을 板刻한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건탑 행위를 통해 결집을 도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대외적 위협까지도 물리칠 수 있다는 정치적 선전에서 활용하려 하였을 법하다. 그런 요소를 내세워 9층 목탑 건립을 계기로 내부 결속과 단합을 시도한 것이라고 풀이된다. 아마도 귀족과 가운데에서도 불교지배이데올로기에 깊숙이 젖어 있던 강경파를 포섭, 포용해 내려는 의도에서 나온 조치였다고 하겠다.

그런데 황룡사 9층목탑의 건립에서 또 달리 주목되는 점은 백제로부터 大匠 阿非知를 초청해 건립하려 하였다는 사실이다. 왜 하필 당면 적대국으로서 현실의 위기를 직접 유발한 백제에서 기술자를 데려오려고 하였을까. 거기에 어떤 강한 정치적 의미가 깃든 것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매우 곤란한 대목이다. 아마도 신라에서는 9층의 목탑을 쌓는 작업은 처음이어서 일단 기술력이 부족하였을 가능성도 컸다. 따라서 바로 직전 彌勒寺의 목탑 건립을 경험한 백제의 공장 아버지를 불러다가 맡겼던 것이다. 그를 위해 群臣이 논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미루어 동시에 어떤 정치적 목적성이 들어가 있음이 확실하다. 아마도 백제로 하여금 정치적 적대관계를 내세우기보다는 타협이나 평화의 몸짓으로 보이도록 하였던 것이 아니었을까<sup>46)</sup> 싶다. 백제와는 우호적 관계 정립의 표현으로서 아버지를 초청하였던

44) 李基白, 「皇龍寺와 그 創建」, 『新羅思想史研究』, 일조각, 1986.

45) 辛鍾遠, 「安弘과 新羅佛國土說」, 『新羅初期佛教史研究』, 민족사, 1992.

것이다. 정치적 입장 여하를 떠나 이는 군신 모두가 찬성한 데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이다. 이 점은 구체적 실상을 살펴보면 저절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9층 목탑의 건립을 발의한 것은 자장이었지만 실무 작업을 맡은 사람은 김춘추의 아버지 용춘이었다. 이로써 두 정치세력 간 합작으로 일구어낸 성과가 곧 목탑의 건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유학을 지향하여 왔던 김춘추가 9층탑의 건립이란 불사를 적극 추진하였다는 사실이 일단 주목된다. 이는 왕권파인 자장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동조한 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수세에 몰린 그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선택이었다. 위기 자체를 불러온 책임은 김춘추의 사위인 김품석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내부 분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었으므로 적극 지원하여 일단 佛國土 건설 과업에 무조건 반대하려는 것이 이념을 내비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이 곧 비난의 화살을 잠시 피해 훗날을 도모하는 최선의 방책이기도 하였을 듯하다. 그러나 춘추와 자장의 합작은 거기까지였다. 대외적인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한 뒤 왕권파가 집권해가면서 그들 사이의 입장 차이는 노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 V. 김춘추의 즉위와 자장의 향방

자장은 당으로부터 귀국한 뒤 불교를 근간으로 한 지배질서의 개선과 개혁적 시책의 마련, 황룡사 9층목탑의 건립 추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시적이거나 내부의 분열상을 일단 봉합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한 셈이었다. 김춘추 일파는 자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불교 중심 정책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것이 곧 한시적이거나 자장과의 결속을 다져가는 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귀족파로부터 가해지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는 방안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신라사회가 안고 있던 안팎의 근본 위기가 완전히 극복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동아시아 일대에는 주축국인 당이 건국 이후 일정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내부 정비를 통해 축적된 에너지를 이제 바깥으로 분출하려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갔다. 그에 따라 주변국들도 위기의식을 강하게 느끼면서 대비하는 등 戰雲이 크게 감도는 형국이었다. 특히 즉위의 과정이 순조롭지 못하였던 당태종이 내부의 불만을 바깥으로 돌려 주변국 정복에 나서면서 위기가 고조되어 갔다. 640년 高昌을 제압한 뒤에는 마지막의 강적이라 할 고구려만을 남겨 둔 상태였다. 당은 이제 고구려 공략에 나설 채비를 차려갔다. 바로 직전 왕조인 수나라가 고구려를 여러 차례에 걸쳐 공격하였다가 실패한 까닭으로 멸망에 이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당으로서는 그 전철을 절대 밟지 않으려는 듯 철저한 준비 작업을 도모하였다. 그리하여 공격을 위한 최후의 정지작업으로서 백제와 신라에도 병력 동원을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46) 盧重國, 『百濟와 新羅의 交渉과 交流』 『신라문화』17-18, 2000.

당의 고구려 원정에 따른 파병 요청은 신라의 내부를 크게 들끓게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백제의 공세로 맞았던 직전의 급한 위기는 넘겼다고 하지만 위협이 아직 상존한 상태인데다가 아무리 당의 요청이라도 파병한다는 자체는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공산이 컸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은 바로 얼마 전 신라가 백제의 공세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청병 요청에 대해서는 온갖 구실을 붙여 철저히 외면한 바 있었다. 그래서 당의 파병 요청을 놓고서 신라 정가에서는 찬반양론으로 나뉘어 논란이 적지 않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최후에는 파병하기로 결말이 지어졌다. 아마도 당의 승리를 예상하고서 차후 그로부터 여러모로 도움이 뒤따르리라 예상한 파병파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파병 주장파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645년 초 본격화된 당의 고구려 공격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파견되었던 신라 병력의 향방은 잘 알 수가 없지만 그로 말미암아 당의 도움은커녕 이제 머지않아 강적 고구려로부터 보복적 공세가 예상되는 국면을 맞아가고 있었다. 게다가 파병의 기간에는 당에서 진행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백제의 공세가 잠정적으로 중단되리라는 기대가 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렇지만 백제는 당의 요구에 부응하지도 않았거니와 도리어 그 틈을 이용해 신라를 공격하였던 것이다<sup>47)</sup>. 물론 시야를 멀리 잡고 보면 그런 형세가 뒷날에는 羅唐의 軍事同盟을 성사시키는 밑거름으로 작용하였지만 당장의 내분을 유발하는 직접적 요인이었다. 아마도 고구려 공격 실패로 파병 주장파가 이제 불리한 처지에 놓였을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주목되는 사건은 당의 고구려 공격이 실패로 마무리된 직후인 645년 11월 이찬 毗曇이 상대등에 임명된 사실이다. 시점으로 보아 비담의 상대등 임명은 파병 실패로 빚어진 책임 소재와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특히 선덕여왕이 평소 병약한데다가 매우 老齡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상대등은 특히 예사로운 자리가 아니었다. 선덕여왕의 제일급 후사로서 유력시되는 자리였다. 아마도 그와 같은 상대등에 뒷날 일어난 반란으로 미루어 귀족파의 영수였다 할 비담이 임명된 것은 곧 파병을 주장한 쪽이 왕권과였음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642년 이후 기존의 좁아진 입지를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던 왕권파로서는 차기의 집권을 기대하기 힘들 정도로 매우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비담이 상대등에 취임하게 되자 왕권파는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덕여왕을 즉위시킬 때 사용한 명분인 ‘聖骨男盡論’을 근거로 사촌동생인 勝曼을 후계자로 내세우려는 구상을 하였다. 이를 둘러싼 논란은 비담이 상대등에 취임한 직후부터 시작된 것 같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타협의 여지가 더 이상 없겠다고 판단한 비담은 647년 1월 초 ‘여주불능선리론’을 다시 전면에 내세워 이제는 자신의 즉위를 겨냥한 반란을 일으켰다. 그는 왕경 동쪽의 명활산성을 주요 군사 주둔지로 삼아 월성 중심의 왕궁을 공격하였다. 초기에는 반란군의 우세 아래 싸움이 한창 전개되던 와중인 1월 8일 선덕여왕이 사망하였다. 그러나 김유신의

47) 『三國史記』5 新羅本紀 善德王 14年 5月條.

책략으로 왕군이 즉각 반격을 반격하여 17일 우두머리 비담을 주살시킴으로써 반란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선덕여왕은 난군에 의한 해를 입어 사망한 것이 아니었다. 아마도 비담은 선덕여왕의 임종이 가까워졌다고 여겨 이 후사를 노려서 난을 획책하였던 것 같다.

승만이 선덕여왕의 뒤를 잇게 되니 이가 곧 眞德女王이다. 바로 직전까지 ‘여주불능선리’란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또 다시 여왕이 즉위하기에 이른 것은 심상치가 않은 일이었다. ‘성골남진’이라 하여도 성골의 여성 전부가 반드시 왕위를 승계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직전 선덕여왕의 치세를 경험한 마당에 다시 진덕여왕이 즉위하기에 이른 것은 결코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당나라에서도 태종이 이미 선덕여왕의 즉위를 문제 삼은 바가 있는데 그에 접근하려는 군사동맹을 맺으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신라로서는 난감하기 짝이 없는 문제였다. 진덕여왕 즉위는 차기를 노린 김춘추의 입장이 강하게 스며들어 있는 선택이었다. 기능하면 자신이 즉위할 명분과 토대를 탄실하게 굳혀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사건의 충분한 정치작업이 필요한 일이었다. 귀족과의 반발을 무릅쓰면서도 그를 위한 시간을 벌어들일 목적에서 다시 진덕여왕을 내세우는 승부수를 던졌던 것이다. 그런 결정이 결국 비담의 반란을 유발시켰다. 결과적으로 그를 진압함으로써 결국 즉위에 한걸음 더 다가설 기반을 확실히 구축한 셈이 되었다. 따라서 진덕여왕의 치세기는 곧 김춘추의 즉위 준비를 위한 과도적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역으로 그만큼 김춘추의 즉위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진덕여왕의 치세기에 사실상의 정치적 실권을 장악한 김춘추는 자신의 입에 맞는 정책을 차근차근 추진해 갔다. 즉위를 위한 밑그림은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이는 기왕과는 정책 방향이 확연히 달라진 데서 드러나는 사실이다. 그것은 唐制를 적극 수용한 점, 그것도 대부분 유학을 지배이데올로기로 삼는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그에 반대하는 입장도 적지 않아 당장 극심한 반발에 부닥칠 수밖에 없었다. 그 점은 자장과의 관계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사실이다.

김춘추는 648년 아들 文王을 대동하고서 입당해 당태종을 만났다. 당에 들어간 목적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다시금 여왕의 즉위가 부득이하다는 설명, 차후 군사적 동맹 관계의 구축, 당제의 적극적 수용 표명 등을 손꼽을 수 있다. 그 가운데 앞으로 신라의 장래 지향과 관련하여 주목해 볼 대상은 당제의 적극적 수용이었다. 이들은 신라의 기존 체제를 당제로 바꾸는 기본적 토대로 기능할 것이었다. 진덕여왕대에 김춘추 주도로 추진된 것은 매우 다양한 방면에 걸쳐 있었다. 당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독자적 연호 사용을 포기하고 대신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는 일, 國學의 수용, 관복을 唐服으로 바꾸는 일, 眞骨在位者로 하여금 牙笏을 잡도록 하는 일, 백관 賀正之禮를 실시한 일, 執事部를 신설해 기밀사무를 담당케 한 일 등을 실례로 손꼽을 수 있다. 당제의 수용으로 지배체제의 근본을 바꾸는 일련의 작업이 시도된 것이지만 전반적 경향은 유학을 수용하여 이를 불교에 대신하는 지배이데올로기로 삼는 것이었다. 이는 신라의 지배체제를 불교이데올로기로 포장하려 한 기왕과는 확연히 다른 방향이었다. 기존 지배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체제

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 작업이 추진된 것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야 할 사항은 그들 가운데 몇몇에 대해서는 자장이 주도한 듯한 기록이 보이는 점이다. 이를테면 자장이 공식 복장을 당복으로 바꾸고 牙笏을 갖도록 건의하였다거나 독자적 연호 사용을 포기하고 당의 그것을 수용하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 등<sup>48)</sup>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춘추가 추진한 정책을 자장이 측면에서 지원하였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거꾸로 양자가 어떤 정책적 경쟁을 도모하였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사례로도 이해 가능한 일이다. 아마도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위에서 든 당복과 당의 연호 도입과 같은 경우처럼 일부는 의견이 합치되었지만 다른 대부분의 경우에는 입장이 달라 대립·마찰이 빚어졌던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자장의 생각은 진덕여왕대의 집권자 김춘추가 추진한 정책과 상당히 차이가 났을 공산이 컸다. 오랜 기간 당에 유학한 경험으로 그 내부 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던 자장으로서 당과의 외교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어가고 국제적 우위를 점하는 정책에서는 적극 협조하였지만 신라의 지배체제 자체가 유학을 지배이데올로기로 삼는 쪽으로 나아가려 한 데 대해서는 불교치국책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반대하였을 것 같다. 그 점은 김춘추가 당에 들어갔을 때 태종에게 가장 먼저 국학에 나아가 釋奠과 講論을 실견하기를 요청할 정도로 적극적인 수용 의지를 갖고 있던 국학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겨우 실무 담당자인 大舍만 두었을 뿐 장관은커녕 博士나 助教와 같은 직책도<sup>49)</sup> 두지 못하고 겨우 설치의 시늉밖에 시도하지 않은 데서 유추해낼 수가 있다. 아마도 당시 花郎徒와 같은 전통적인 인재 양성 방법을 대체해나갈 국학의 수용은 커다란 반발에 부딪친 상황이었음을 드러내어 준다. 이는 김춘추가 즉위를 통해 실현하려는 이상과 방향에 대해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점은 진덕여왕이 사망한 뒤에 김춘추가 즉위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뚜렷하게 확인되는 사실이다.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을 즉위시키기 위해서 서로 협력한 왕권파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체제 그대로의 유지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전면적인 체제 개편을 주장하는 입장, 혹은 부분적으로만 체제 정비를 도모하려는 소극적 입장 등으로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였다. 그 위에 아직 귀족파의 세력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정황은 머지않아 도래하게 될 차기의 왕위 승계 구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터였다. 진덕여왕의 죽음이 임박해지면서 이후를 누구로 결정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되어 갔지만 각자의 내심은 달라 한판의 대결이 불가피한 극단의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었다. 김춘추가 비담의 난을 제압한 뒤 사실상의 실권을 장악하였고, 차후 즉위 1순위의 상태였다고는 하지만 그에 반대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그 점은 다음의 사료에 잘 나타나 있다.

48) 『三國遺事』4 義解 慈藏定律條 및 『三國遺事』1 紀異1 太宗春秋公條.

49) 『三國史記』38 雜誌 職官 上 國學條. 이에 대해서는 朱甫暉, 「신라의 國學受容과 그 展開」 『신라 국학과 인재 양성』, 민속원, 2015 참조.

B)㉠진덕여왕이 사망하게 되자 군신들이 關川 伊滄에게 섭정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알천은 굳게 사양하면서 “신은 늙었고 德行이 없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덕망이 崇重된은 春秋公 만한 이가 없습니다. 실로 세상을 구제할 영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받들어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춘추가 세 번이나 사양하다가 마지못해 왕위에 올랐다(『三國史記』5 新羅本紀 武烈王 卽位年條)

㉡永徽五年 眞德大王이 사망하자 후사가 없었다. 유신이 재상 알천 이찬과 모의해서 춘추 이찬을 맞아들어 즉위하니 이 사람이 太宗大王이다(三國史記』42 列傳 金庾信傳 中)

㉢왕(진덕여왕)의 재위 시절 關川公, 林宗公, 述宗公, 虎林公(慈藏의 아버지), 廉長公, 庾信公이 남산의 于知巖에 모여 국사를 의논하였다. 이때 큰 호랑이가 좌중으로 뛰어들었는데 모든 사람이 놀라서 일어났다. 그러나 알천공만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태연히 웃고 말하면서 호랑이의 꼬리를 잡고 땅에 내리쳐 죽였다. 알천공의 힘이 이와 같아 首席에 처하였으나 諸公은 모두 유신의 위엄에 복종하였다(『三國遺事』1 紀異 眞德王條)

654년 봄 진덕여왕은 후사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그때까지도 후계자를 둘러싼 결론이 내려지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그를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어 왔음을 뜻한다. 진덕여왕 사망 후에는 이제 어떤 형태로든 후계를 확정짓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제 그야말로 성골의 여성까지도 전부 없어지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群臣들의 논의를 통해 부랴부랴 채택된 방안이 ㉣에 보이듯이 알천의 攝政案이었다.

막연히 군신이라고만 표현되어 그 구체적 실상은 알기 어렵지만 ㉣에서 6인의 최고 유력자들이 모인 회의처럼 비슷한 논의 구조가 있었던 것 같다. 사료 ㉣에서처럼 알천의 능률한 태도에서 드러나듯이 형식적인 서열은 그가 최고였다. 하지만 모두가 김유신의 위엄에 복종한 사실은 현실적인 힘과 실상이 차이가 났음을 의미한다. 이는 당시의 모습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으로서 형식과 실질이 달랐으며 이로 말미암아 진덕여왕의 재위 연간에는 후계자를 쉽게 결정짓지를 못하였던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김춘추가 현실의 실질적인 집권자이기는 하였어도 어떻게 당장 즉위하기가 곤란하였음을 뜻한다. 그래서 군신들은 논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알천을 섭정에 추대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그런데 군신들이 결정 사항으로 알천에게 내민 것은 왕위가 아니라 攝政이었던 점은 각별히 주목해볼 대상이다<sup>50)</sup>. 섭정은 왕위 승계권자를 확정짓지 못한 데서 나온 궁여지책의 타협안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를 둘러싸고 크게 논란되다가 시간을 벌기 위한 일종의 절충안으로 마련한 것이 섭정이었던 것 같다. 이보다 앞서 법흥왕이 사망하고 조카(외손자)인 진흥왕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을 때 그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어머니 只召太后가 약 10년 동안 섭정한 적이 있었다<sup>51)</sup>. 그렇지만 알천의 섭정은 왕위가 비어있는 상태에

50) 윤진석, 「신라 至都盧葛文王의 ‘攝政’」, 『한국고대사연구』55, 2009.

51) 『三國史記』4 新羅本紀 眞興王 卽位年條 ; 『三國遺事』1 紀異1 眞興王條.

서의 것이란 점에서 그와는 본질적 차이가 나는 전무후무한 특이 사례에 속한다. 이는 그만큼 왕위 승계권자를 놓고 내부적으로 대립·갈등이 극심하였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결과로서 김춘추를 미는 일파와 반대파 사이에는 직접적인 마찰과 대결을 피해서 일단 시간을 벌이려는 데서 나온 부득이한 궁여지책의 타협인 셈이었다. 이는 현실적 실력자인 김춘추가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한 상태인 데서 빚어진 일이기도 하였다. 섭정으로 추대된 알천은 그에 대해서 자신은 이미 늙고 덕행이 없다는 명분을 내세워 섭정조차 강하게 사양하였다. 그 대신 알천은 춘추를 대안으로서 추천하였다. 사실 알천의 현실적 힘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데서 내린 불가피한 결론이었을 것 같다.

여기서 주목해볼 점은 알천이 섭정을 사양하고 대신 춘추를 추천하였을 때 그가 무려 세 번에 걸쳐 사양하다가 마지막에 즉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세 번의 사양 사실을 흔히 왕위 자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는 전후 실상을 고려하면 재고해볼 여지가 있는 이해이다. 그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그토록 오랜 기간 꿈꾸어온 왕위를 무려 세 사례에 걸쳐 사양한 사실은 쉽게 납득되지 않음 때문이다. 게다가 알천이 대안으로 춘추를 추천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그것이 왕위일 리는 만무한 일이다. 실제로 알천에게 왕위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세 번 가운데 적어도 두 번, 아니면 세 번 모두가 섭정의 제의였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로 읽혀진다. 만일 섭정을 맡게 된다면 다음에는 정상적 과정으로 왕위에 나아가는 것이 매우 곤란해질 상황이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의 나이도 이미 오십을 넘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끝내 섭정을 거절하자 군신들은 마침내 왕위를 제안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춘추가 수락하게 된 것으로 이해함이 순조롭다.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구체적 실상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최종적으로는 위의 사료 ㉠에서 유추되듯이 알천과 김유신의 일대 타협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더 이상 왕위를 비워 두거나 논란하기 곤란할 정도로 안팎의 사정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알천의 섭정 결정이나 춘추의 세 번에 걸친 사양 등 전반적 사정으로 미루어 상당한 우여곡절을 거쳐 즉위하였지만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았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까닭으로 장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신이 설정한 유학적 지배이데올로기에 바탕한 새로운 지배질서의 구축도 물론 그러하지만 이미 나이가 많았던 까닭에 당장 후계 구도까지 안정적으로 마련해 두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일시에 徒勞가 될 위험성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를 위해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자신의 직계 尊屬을 드높여 아버지 용춘을 文興大王으로, 어머니를 천명을 文貞太后로 추봉하고 律令을 정비한 일이었다. 그 이듬해인 655년에는 장남 法敏을 태자로, 나머지 왕자들도 고위 관등을 지급함으로써 王子 중심의 운영 체계를 갖추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적대세력이 온존하는 한 앞날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열왕 김춘추는 그를 위해 일단 몇 가지 특단의 긴급 조치를 실시하였다. 하나는 자신

을 반대하는 정치적 적대세력을 곧바로 제거하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그 가운데 일부는 당분간 포용하는 두 갈래의 방식이었다. 자신의 즉위를 반대함은 물론 장차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근본적 입장 차이를 보이는 이른바 강경파에 대해서는 당장 거세하였다. 한편 소극적인 반대파에 대해서는 일단 곁으로는 포용해주는 자세를 취하였다. 반감을 갖는다면 차후를 노려 제거하려는 것이다. 아마도 자신의 즉위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쪽과 소극적으로 반대하는 쪽을 각기 다르게 분리해서 관리함으로써 서로 결속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뒷날의 행적으로 미루어 자장은 김춘추 즉위에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 자장의 아버지 호림[茂林]이 알천 등 6인 가운데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그가 진덕여왕 당대까지 생존하였을 가능성은 별로 크지 않아 보인다. 어쩌면 무림이 6인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나 그는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현실적으로는 당시 가문을 대표한 이는 아들인 자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진덕여왕대에 추진된 정책을 놓고 춘추 일파와 갈등하던 자장의 향방은 분명하지는 않으나 그 무렵 혹은 무열왕이 즉위하자 왕경을 벗어나 강릉 부근의 오대산 자락 일대에 머물면서 생활을 영위하였다. 문수보살을 만나러 간다는 명분이었지만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도 못하고 떠돌았으며 또 문수대성이 눈앞에 나타났으나 즉각 알아보지 못함으로써 我相을 가진 사람으로 비난을 받았다가 곧바로 사망하고 말았다. 자장의 죽음을 둘러싼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sup>52)</sup> 춘추의 즉위에 즈음해서 왕경을 떠난 자체가 정상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의 딸년이 순탄하지 않았음은 확실하다. 이는 곧 정치적 적대세력과의 대결에서 밀리게 된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다. 같은 왕권파로서 일단 귀족파를 누르고 우위를 장악하는 데까지는 상호 협조하였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뚜렷하게 대비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서로 갈등을 겪게 되고 마침내 세가 불리해짐으로써 밀려난 자장은 오대산 자락 주변을 떠돌다가 객사하고 만 것이었다.

무열왕은 자장으로 대표되는 상대적 소수였던 강경 반대파들을 밀어내었지만 온건 반대파들은 그대로 남겨 두었다. ‘여주불능선리론’자들은 성골 여왕의 즉위에는 반대하였지만 그것이 곧 남왕인 김춘추의 즉위까지 반대할 명분으로 내세워질 일은 아니었다. 그들은 세가 불리하였으므로 어쩔 수 없이 김춘추의 즉위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춘추도 일단 이들에 대해서는 곁으로 포용하고 회유하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를테면 655년 金剛을 상대등에 임명한다든지 659년 1인 증치한 兵部舍에 眞珠를 앗힌다든지 하는 데서 짐작할 수가 있다. 이들은 사실상 귀족파로서 온건한 입장이었지만 그 수는 적지 않았고 또 상대적으로 뿌리가 깊었으므로 무열왕은 강경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것이 곧 戰爭이란 강력한 수단의 동원이었다. 무열왕이 유난스레 백제와의 전쟁

52) 남동신, 앞의 논문과 김상현, 앞의 논문을 대비해보면 드러나듯이 자장의 최후와 관련 하여서는 상반된 입장이 있다.

을 고집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이들은 전쟁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하나씩 제거되어 갔다. 무열왕이 백제와의 전쟁을 끝까지 고집해 밀고나가는 데에 성공한 것은 그의 즉위 과정에서 안게 된 내부 문제가 적지 않게 작용한 셈이었다.

## VI. 맺음 말

큰 시야에서 바라보면 중고기가 신라사에서 지나간 과도기였음이 단번에 드러난다. 공동체인 부체제적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지배체제로 바뀌면서 그에 어울리는 귀족, 귀족관료가 출현하였다. 그에 따라 전통문화에 토대한 지배이데올로기도 저절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종교인 불교가 수용, 대체되어간 것도 그 때문이었다. 불교는 공인 이후 지배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전륜성왕 의식, 석가족 신앙, 성골 관념 등을 만들면서 불교식 왕명시대를 연출하였지만 일정한 수준에 이르자 다시 모순과 한계를 노정하였다.

국왕을 정점에 둔 지배체제가 강화되어가자 지배귀족들 일부는 자신들의 기반이 잠식당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가졌다. 그들은 국왕의 배타적 독점권에 대항해 권력 행사의 분점을 주장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국왕 정심의 강력한 지배체제를 구축하려는 이른바 왕권파와 귀족들의 발언권 강화를 추구하는 귀족파가 대립·갈등하는 흐름이 중심축을 이루면서 중고기는 흘러갔다.

그들 두 그룹이 상호 견제하는 긴장관계가 유지되어가자 자연 정치적 소외 세력도 생겨나 주류에 편입되지 못한 채 배제되어 갔다. 그 가운데 대표적 인물로서는 김춘추와 김유신을 들 수 있다. 양자는 出自와 기반에서 기존 지배질서에 내재된 한계와 모순을 태생적으로 함께 절감하면서 대안을 꿈꾸어갔다. 그들을 묶어주는 기능을 한 것은 불교 속에서 성장, 확산되어 간 儒學이었다. 유학은 그들로 하여금 당면 현실에 대한 불만을 터주는 창구로서 기존 지배질서에 대체하는 대안적 지배이데올로기로 기능하였다.

그들은 유학으로 무장하였지만 현실적 실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한갓 꿈에 지나지 않을 뿐이었다. 때마침 불교이데올로기를 적극 활용한 진평왕에 의해 성골이 창안되었으나 그가 끝내 후사를 얻지 못하였고 또 당시 隋唐제국의 등장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면서 유학적 이상을 가진 정치세력이 꿈을 실현시킬 만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었다. 왕위 승계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하기 시작하였을 즈음 그들은 선덕여왕의 편에 가담하였다. 당시 그들과 함께 여왕을 지지한 인물로는 전통 귀족 출신의 승려 慈藏이었다. 비담처럼 상당수의 귀족들은 불교를 신봉하면서도 여왕의 즉위를 반대하는 최선봉에 섰다. 불교계 내부도 정치적 입장은 양분되었던 것이다.

한편 김춘추와 자장은 선덕여왕을 지지하는 데서는 같은 입장이었지만 정치 지향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자장은 불교지배이데올로기에 바탕한 기존 체제를 그대로 이어가려 한 반면 김춘추는 유학을 지배이데올로기로 삼은 새로운 체제의 건설을 겨냥하였다. 따라

서 이들은 여왕 반대파들을 제거하는 데에는 힘을 합쳤지만 일단 성공한 이후에는 필히 결별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대세는 현실적 실력의 우위에 서있던 김춘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김춘추는 진덕여왕대에 현실의 실세로 군림하기는 하였으나 즉위하는 데에는 끝까지 상당한 곡절을 겪었다. 그의 즉위를 탐탁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탓이었다. 김춘추가 즉위할 수 있는 명분이 취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추구하려 한 지배체제는 보수적 기득권 세력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논의 끝에 상대등 알천을 섭정으로 추대하고, 나아가 김춘추에게도 섭정을 권하는 타협안 제안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에는 그들은 김춘추의 현실적 실력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위한 뒤 김춘추는 정치적 반발 세력을 強穩 두 그룹으로 나누어 취급하는 분리정책을 실시하였다. 한때 입장을 같이한 자장을 철저히 배제시켰다. 밀려난 자장은 드디어 왕경을 떠나 오대산 자락에서 떠돌다 객사하고 말았다. 무열왕 김춘추는 여타 온건 반대파들은 포용하거나 회유하면서 끝까지 반발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제거할 준비를 착실히 진행시켜가고 있었다. 그것인 곧 명운을 건 백제와의 한판 전쟁이었다. 백제와의 전쟁을 통해 김춘추가 기대한 노림수의 하나는 바로 정치적 적대세력의 완전한 제거에 있었다.

[논문투고일 : 1월 16일, 논문심사완료일 : 2월 8일, 논문게재확정일 : 2월 10일]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저서

- 金德原, 『新羅中古政治勢力研究』, 경인문화사, 2007.
- 金相鉉, 『新羅의 思想과 文化』, 일지사, 1999.
- 金哲垞, 『韓國古代社會研究』, 지식산업사, 1975.
- 남무희, 『신라 자장 연구』, 서경문화사, 2012.
- 文暲鉉, 『增補 新羅史研究』, 도서출판 춤, 2000.
- 李基東, 『신라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한국연구원, 1980.
- 李基白,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1974.

2. 논문류

- 金基興, 「桃花女·鼻荊郎 설화의 역사적 진실」 『韓國史論』41·42, 1999.
- 金德原, 「신라 中古期 舍輪系의 政治活動」 『白山學報』52, 1999.
- 金相鉉, 「慈藏의 정치외교적 역할」 『佛敎文化院』4, 1995.
- 金瑛河, 「新羅 中古期의 政治過程 試論」 『泰東古典研究』4, 1988.
- 金哲垞, 「新羅上代社會의 Dual Organization(上,下)」 『歷史學報』1·2, 1952.
- 南東信, 「慈藏의 佛敎思想과 佛敎治國策」 『한국사연구』76, 1992.
- 盧重國, 「百濟와 新羅의 交涉과 交流」 『신라문화』17·18, 2000.
- 文暲鉉, 「新羅 王族의 骨制」 『大丘사학』11, 1976.
- 朴淳敎, 「金春秋의 執權過程 研究」(경북대박사학위논문), 1999.
- 朴勇國, 「統一戰爭期 新羅 政治勢力의 構成과 變化」(경북대박사학위논문), 2005.
- 辛鍾遠, 「安弘과 新羅佛國土說」 『新羅初期佛敎史研究』, 민족사, 1992.
- 辛鍾遠, 「慈藏과 中古時代 社會의 思想的 課題」 『新羅初期佛敎史研究』, 민족사, 1992.
- 申滢植, 「武烈王系의 성립과 활동」 『韓國史論叢』2, 1977(『韓國古代史의 新研究』, 일조각, 1984).
- 廉仲燮(玆玄), 「慈藏의 傳記資料 研究」(동국대박사학위논문), 2015.
- 윤선태, 「통일신라의 발명과 근대역사학의 성립」 『신라의 발견』, 동국대출판부, 2008.
- 윤선태, 「김춘추의 집권과 즉위」 『신라의 삼국통일』(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04), 2016.

- 李基東, 「신라 奈勿王系の 血緣意識」 『歷史學報』53-54, 1972.
- 李基白, 「上大等考」 『歷史學報』19, 1962.
- 李基白, 「皇龍寺와 그 創建」 『新羅思想史研究』, 일조각, 1986.
- 李成市, 「新羅僧·慈藏의 政治外交上의 役割」 『朝鮮文化研究』2, 1999.
- 李銖勳, 「新羅 僧官制 의 성립과 기능」 『釜大史學』14, 1990.
- 李晶淑, 「新羅 眞平王代의 政治的 性格」 『한국사연구』52, 1986.
- 朱甫噉, 「金庾信의 政治志向」 『新羅史學報』11, 2007 ; 「김춘추의 정치지향과 유학」 『국왕과 의례』(이태진교수정년기념논총), 2008.
- 朱甫噉, 「金春秋의 外交活動과 新羅內政」 『韓國學論集』20, 1993.
- 朱甫噉, 「毗曇의 亂과 善德王代 政治運營」 『李基白先生古稀紀念 韓國史論叢』, 일조각, 1994
- 朱甫噉, 「三國時代의 貴族과 身分制」 『韓國社會發展史論』, 일조각, 1992.
- 朱甫噉, 「신라의 國學受容과 그 展開」 『신라 국학과 인재 양성』, 민속원, 2015.
- 朱甫噉, 「중앙통치조직」 『한국사』(삼국의 정치와 사회Ⅲ), 국사편찬위원회, 1977.
- 蔡尙植, 「慈藏의 교단정비와 僧官制」 『佛敎文化研究』4, 1995.